칠성본풀이

옛날이라 옛적에 장설룡 대감님도 살고, 송설룡 부인님도 살았는데. 장설룡 대감님과 송설룡 부인님이 부베간[1]을 삼안, 사는게.

경 헤도, 경 부자로 잘 살아도 자식이 엇인 거라. 게난 동게남(東觀音)은 상저절 서게남(西觀音)은 금법당(金法堂)에, 송낙베[2]도 구만장, 장삼베[3]도 구만장, 강나록[4]이여 초나록[5]이여 벡근 군량을 체완 간[6]. 이제 절에 간 칠성기도를 드린 거라.

칠성기도 드련에 허난, 이제 내려완. 조은 날 골리[7] 잡안 천상베필을 무엇더니만 절에서 스님이

"당신네도 정성이 부족허난 아들은 못 낳곡, 뚤 나쿠덴."

허연. 경 허연 집에 완에 조은 날 잡안 천상베필(天上配匹)을 무으난[8] 포테가 뒈언. 애기 낳는거 보난 뚤 난 거 아니.

이제 여ᄌᆞ식 탄셍허난. 우리가 칠성기도를 허연 낳앗덴, 이 애기를 이름을 칠성애기렌 지은 거라. 경 칠성애기렌 일름을 지왓인디.

ᄒᆞᆫ 설, 두 설, 일곱 설이 뒈난. 장설룡 대감이랑 장설 베슬을 살레오라, 송설룡 부인이랑 송설 베슬로 살레오렌. 연락을 받으난. 가젠 허난. 느진덕정하님ᄀᆞ라,

"우리 애기씨 문 안에서 밥을 주곡, 문 안에서 옷을 주곡, 물을 주곡헹 키왔이렌[9]. 강 왕 종문서 벳겨주마."

허난.

"경 협센."

허연. 아바지, 어머니가 가메 탕 가 가난, 어느동안 애기가 술쩩이[10] 빠져나간 거라 그냥. 경 헨 나간. 아방 어멍 가는 가멧 벳줄[11]에 동네 사람덜 강 베슬 잘 살아옵센 막, 거 환송허연. 몰래몰래, 가멧 벳줄 심엉덜 가가난 그 애기도 그 ᄒᆞᆫ통에[12] 들어근에 애기가 가단, 묵은[13] 각단[14] 새 각

---

1) 부베간: 부부간.
2) 송낙베: 고깔을 만들 감.
3) 장삼베: 장삼(長衫)을 만들 감.
4) 강나록: 밭벼.
5) 초나록: 찰벼.
6) 체완 간: 채워 가서.
7) 골리: 고르다.
8) 무으난: 맺으니.
9) 키왔이렌: 키우고 있어라.
10) 술쩩이: 살그머니.
11) 가멧벳줄: 가마에 매어있는 뱃줄

단 밧[15]디 가난, 애기가 지쳥 오꼿 떨어져 분거라. 사람덜토 하나 두개 지친 사람들도 떨어져불고. 경 허난 애기씬 그디서 떨어지난, 지만 걸어앚언 암만 뎅겨도 집도 못촞고 질도 못촞고 허난. 묵은 각단 밧에서 막 누원 둥글어분 거 아니. 집이서 느진덕정하님이 애기씨 이제랑 밥을 주저, 옷을 주저 허연 문 열어보난 애기씨가 엇어. 경 허난 이제 큰일낫저 헨. 이젠 동네방네 금방상 뭐, 건이웃, 다 촞안 뎅겨도 애길 못 촞은 거라. 촞당촞당 버치난 장설룡 대감 송설룡 부인님신디 편지 서신을 띠우기를

'애기씨 상전님이 간간무례[16] 뒈엇우다. 삼년 살 공ᄉᆞ(公事)건 단 석덜에, 석덜 살 공ᄉᆞ(公事)건 흔 사흘에 판단허영 흔저 내려 옵센.'

게난 공ᄉᆞ(公事) 살단, 다 이제 치와둰 내려완보난 진짜로 애기씨가 엇인 거 아니. 부부간이 앉안 탄복(坦腹)을 허노렌 허난, 스님 서이가, 중이 대ᄉᆞ(大師) 서이가 이제 장설룡 대감 송설룡 부인이 베슬살레[17] 간 오랏젠 허난. 스님덜은 중이, 대ᄉᆞ(大師)님네가, 서이가 그 장설룡 대감님 집더레 내려사노렌 허난. 거난 첩첩산중에서게 내려산 묵은 각단 밧딜로 새 각단 밧딜로 가가난. 누게가, 애기씨가

"앞에 가는 대ᄉᆞ(大師)님아 날 살려 줍서."

허난. 그 대ᄉᆞ(大師)님 귓전에는 ᄇᆞ름 소리만 쉉~쉉허는 소리가 들린 거라. 사람소리가 아니고. 또

"가운데 가는 대ᄉᆞ(大師)님아 이내 몸 살려 줍서."

헤도. 그 대ᄉᆞ(大師)님 귓전에도 ᄇᆞ름 소리가 셍~허멍 ᄇᆞ름 소리만 들리고

"아이고, 조롬에[18] 가는 대ᄉᆞ(大師)님아 날 살려 줍서."

허난. 조롬에 가는 대ᄉᆞ(大師)님 귓전에는 인간 소리가 난거라.

"아이고, 이 산중에 누게가 잇인고."

허난. 확 돌아산 보난. 아, 애기씨가 잇인 거라. 간보난 아이고 묵은 각단 새 각단 밧디서 하도 누원 둥글어부난. 온 몸에 ᄆᆞᆫ딱 피가 그냥 유혈이 낭자가 뒈언. 막 물비리 당비리가 뒈고. 이젠 애기씬 막 누원 둥글멍 울단 보난, 까마귄 넘어가당 오꼿[19] 눈도 흔착 조사불고[20] 경 허연. 간 보

---

12) 흔통에: 한통에.
13) 묵은: 헌. 오래된.
14) 각단: 길이가 짧은 띠(茅).
15) 각단 밧: 띠밭.
16) 간간무례: 간데 온데 없이 사라져 버림.
17) 베슬살레: 벼슬살러.
18) 조롬에: 꽁무니에.

난 몸은 얼굴은 사름이고 몸은 베염이 뒌 거라. 게난 인사(人蛇)가 뒈연. 경 헨 누웡 잇이난.

“애기씨, 아이고 우리 법당에 오란 수륙드련 난 애기옌.”

허연. 스님이 홀목을 잡안 볼근볼근 줸 거라. 줴연 세 확확 비언 끌레기[21] 멘들안. 그 쏘곱에 담안. 이젠 등에 지언. 경 헨 이젠 오노렌 허난. 벌써, 애기씨는 아바지 어머니 꿈에 간 선몽(現夢)을 드린 거 아니.

“아바님아, 어머님아, 이 날이 붉으면 삼베중[22]이 권제를 받으레 올거우다. 권젤 받으레 들어사건 앞에 오는 중이 대ᄉᆞ(大師)도 권제를 줭 보내고, 두 번째 오는 중이대ᄉᆞ(大師)도 권제를 줭 보내뒈, 세 번째 오는 중이 대ᄉᆞ(大師)랑 권제를 주지 말앙 총베[23]에 물을 적정 답ᄃᆞ리를 헤 보민 알아볼 도리가 있고 나 잇인 딜 알아집니다.”

꿈에 선몽(現夢)을 허난. 아닌게 아니라, 아침인 일어난. 어느 제민 언ᄎᆞ냑[24] 꿈에 영 싯구완게 중이 대ᄉᆞ(大師)가 올 건가. 어떵 헐건가 앚앗이난. 아닌게 아니라 올레로, 짓알로

“소승들이 붸옵네다.”

허멍. 스님이 들어완. 첫 번째 온 스님은 권제를 주엉 보내고, 또 ᄒᆞ꼼 시난[25] 두 번째 스님도 또 권제를 주엉 보내고, 세 번째 중이 대ᄉᆞ(大師)가 들어오난 저 총베에 물 적지렌 장설룡 대감이 웨어가난

“아이고, 우리 집이 우리 뚤, 우리 애기씨 간디 알아지느넨?”

허난.

“당신님네가 부르면 애기가 대답헐만 헌디, 웨민 애기씨가 알아들을만 헌디 잇우다.”

허연 허난

“아이고, 요 소서중이 무슨 술수를 부렷구나.”

총베에 물 적지렌[26]허고 막 헤가난 죽일팔로[27] 막 둘른 거라. 막 둘러가가난 스님이 하늘 우트레[28] 축원을 허젠.

---

19) 오꼿: 곧. 즉시.
20) 조사불고: 쪼아버리고.
21) 끌레기: 꾸러미.
22) 삼베중: 삼베로 만든 장삼을 입은 중.
23) 총베: 말의 갈기나 마소의 꼬리털로 만든 배.
24) 언ᄎᆞ냑: 어제 저녁.
25) ᄒᆞ꼼 시난: 조금 있으니.
26) 적지렌: 적시라고.
27) 죽일팔로: 죽이려고 하는 모습으로
28) 우트레: 위로.

“멩천(明天)ᄀᆞ뜬 하늘님아, 이네 몸을 살리컬랑 하늘 우일로랑 보인안개 산안개나 내리우고, 땅 알로랑 모진, 이제 구둠[29]이나 일롸줍센.”

경 허연 축원을 헤 부난.

아, 삽시간에 하늘로 안개가 푹허게 져불고, 땅에선 ᄇᆞ름이 그냥 훼오리ᄇᆞ름[30] ᄀᆞ추룩 벵벵벵벵 ᄃᆞᆯ멍 막 몬지[31]가 그냥 막 나 분 거 아니. 게난 하늘 땅이 왁왁 헤 분거라. 경 허는 보름에 제일 말짜 온 스님은 이담 저담, 담 짚으멍 올레더레 겨우 빠젼 ᄃᆞᆯ아나분 거주게. 경 허난 이젠 ᄒᆞ꼼 잇어가난 안개도 그쳐가고 ᄇᆞ름도 자 가난 느진덕정하님덜 수장님덜 내놘

“다 춪아보라. 부르민 알아들을만 헌디 잇고, 웨민 대답헐만 헌디 잇젠 허난 ᄒᆞᆫ번 춪아보렌.”

허연. ᄆᆞᆫ딱 춪당 보난. 올레에 싱근 들어 ᄆᆞᆯ팡ᄃᆞᆯ[32] 아래 오란 놔 분거라. 게난 애기씨 여기 잇우덴 허연 돌아당 보난. 얼굴은 사름이고 몸은 베염성치 인사(人蛇)가 뒈 분 거 아니. 아이고, 이거 큰일낫젠. 베도 보난 두룽둥베가 뒈고 사름이 아니라. 게난 은대양에 물을 떠단 앚전 굴메[33]를 보난. 베염 ᄋᆞ섯 개가 베 쏘곱에 오골오골오골 담아진 거라. 이거 양반칩이 ᄉᆞ단공저[34]가 낫저. 큰일낫젠 죽여불젠 허난, 어멍ᄀᆞ지 일곱 목숨을 죽이게 뒌 거라. 게난 아이고, 죽이느니 동이와당 쉐철이 아들 불러단 무쉐설캅(鐵石匣) 짠. 귀양정베(歸鄕定配)나 보내불주게 헨. 동이와당 쉐철이 아들 불러단 무쉐설캅(石匣)을 짠. 이젠 바당더레 띠와 분거라 그냥.

게난 강남천자국서 띠와부난 물 우이도 흥당망당 연삼 년, 물 아래도 흥당망당 연삼 년, 중간에도 흥당망당 연삼 년 떠 뎅기단. 강남천ᄌᆞ국에서 ᄇᆞ름질에 물결치는 양 오는게이 제주절동을 들어선 거라. 게난 경상도는 칠십칠관, 전라도는 오십삼관 넘언. 진도 안섬, 진도 밧섬을 넘어산. 이젠 제주도로 들어오난

첫째로, 제주시로 오란 들젠 허난. 이 산지(山地) 칠머리[35]용궁(龍宮) 감찰지방관(監察地方官) 쎄언. 나 궤[36]로다, 못 든덴. 나가렌. 나 궤엔 헌거는. 거, 영 말하자면 선창에 강 보면, 요즘에 뭐엔 허느니 거. 아니 동글

---

29) 구둠: 먼지.
30) 훼오리ᄇᆞ름: 회오리바람.
31) 몬지: 먼지.
32) 물팡돌: 노둣돌(下馬石).
33) 굴메: 그림자.
34) ᄉᆞ단공저: 어떤 일을 중지해야 할 만큼 공공연한 일
35) 산지 칠머리: 제주시 건입동의 지명.
36) 궤: 굴(窟). 신이 머무는 곳.

락허게 허여근에 그디 궤기[37]도 들어오게 허고 허는. 원. 원, 원이주게 게난. 나 궤로다. 못 들어온덴 나가렌 허난. 이젠 나산.

화북(禾北)으로 간 들어가젠 허난. 화북(禾北), 이젠 가릿당한집이, 여기도 나 궤로다 못 들어온덴 나가렌. 또 이젠 나사난 삼양(三陽)[38]은 가난 시월도병서가 쎄어지언 나 궤로다 못 들어온덴 나가렌. 삼양일동 설개 ᄆᆞ을[39]은 가난 강남하르방, 강남할망이 쎄어지언. 나 궤로다 못 든덴.

이젠 나사난 신촌(新村)[40]은 가난 큰물머리. 김동지, 고동지, 홍동지 영감이 이제 ᄎᆞ지헌[41] 한집에서 나 궤로다 못 든덴 나가렌 허난. 이젠 조천(朝天)[42]은 가난. 정중아미 정중도령 정중부인 세콧한집이 쎄어지언 나 궤로다 못 든덴 나가렌.

이젠 신흥(新興)[43]은 가난. 대방황소축일 한집광 알당은 볼레낭할망이 쎄어지언 나 궤로다, 나가렌. 어딜로 가보코 허단. 이젠

함덕(咸德)[44]은 가난. 동편금서 서편왕서급소황하늘, 알동넨 ᄒᆞᆫ 물 두 물서 물 한집이 쎄언 나 궤로다 나가렌 못 들어온덴.

글로 나사난 북촌(北村)[45]은 가난. 영산주 노산주 한집이 쎄어지언 나 궤로다 못든덴, 나가렌.

글로 나산 동복(東福)[46]은 가난. 셍이하르방 셍이할망 나 궤로다 못 들어간덴.

김녕(金寧)[47]은 가난. 큰도안전 큰도부인 성세기, 뭐 ᄂᆞ무리여 궤눼기여 쎄여지여 나 궤로다 못 들어온덴 나가렌 다울려부난.

이젠 글로 나간게 월정(月汀)[48]은 가난. 이제 서당팟한집 황정승ᄯᅳ님애기가 쎄여지언 나 궤로다, 못 들어온덴.

저 행원(杏源)[49]은 가난. 나주목사(羅州牧使)서 나주판관(羅州判官) 쎄여지언 나 궤로다 못 든덴. 이젠 한동(漢東)[50]으로 가난 구월구일 한집이 쎄

---

37) 궤기: 고기.
38) 삼양(三陽): 제주시 삼양동.
39) 설개 ᄆᆞ을: 제주시 삼양동 마을.
40) 신촌(新村):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.
41) ᄎᆞ지헌: 차지한.
42) 조천(朝天):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.
43) 신흥(新興):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.
44) 함덕(咸德):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.
45) 북촌(北村):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.
46) 동복(東福):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.
47) 김녕(金寧):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.
48) 월정(月汀):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.
49) 행원(杏源):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.
50) 한동(漢東):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.

어지언 나 궤로다 못 들어온다. 아이고, 어디로 가코.

이젠 이젠 평댄(坪岱ㄴ) 가난. 수데깃도 쎄어지언 나 궤로다 못 들어온덴. 겟마리[51]에 가난 멍동소천국이 쎄언 나 궤로다 나고가렌 다올려분거라. 상세와린(上細花里) 간. 들어가지카부덴 허난 천ᄌᆞ 벡ᄌᆞ 도내금상이 쎄어지언 나 궤로다, 나고 가렌. 글로 나사난. 하도가난 도궐로도집서가 쎄어지언 나궤로다 못 든덴. 게난 원렌 이거 본향을 다 거느려야 뒈는건디, 알아지민 다 거느리고 자기 알아지는디 ᄁᆞ지만 허고. 겐. 제주도를 ᄒᆞᆫ 바퀴 빙 돌앗인디도 각 마을마다 강 보난 당이 잇고, 본당이 잇언 쎄여지언 못 들어가는 거라. 이젠 대 꺾언 들물 썰물 받으난 함덕 서우봉(犀牛峰)아래 간. 서우봉(犀牛峰) 아래 가난. 무에낭 상가지에 간. 탁 걸려분거 아니. 게난 무에낭상가지에 걸려부난 올라가지도 못허고 내려오지도 못허고. 그디간 걸어젼 잇이난, 함덕 일곱 ᄌᆞᆷ녜들은 헛무레질[52]이나 들어보젠 허연. 무레질[53]허레 간. 물질허레 간보난 무쉐설캅(鐵石匣)이 무에낭 상가지(上支)에 걸려젼 잇이난. ᄒᆞᆫ ᄌᆞᆷ녜가 그걸 내리난. 이젠 일곱 ᄌᆞᆷ녜가 서로가 ᄃᆞ투는거라

"느가 건졋저."

"나가 건졋저."

이제 막 ᄃᆞ투완 헤 가난. 그 쏘복에 무시거 금이나 들어시카부덴 ᄃᆞ투왓던[54]거주게. ᄃᆞ투완에 이젠 머리멜삭 헶이난. 저 엉물[55], 저 함덕우이 알선흘 엉물, 송첨지영감은 볼락이나 낚아당 저녁 반찬이나 허주 허연. 춤대[56] 둘러메고 허연 송동바구리 둘러메고 경 허연. 볼락 낚으레 강 보난 일곱 ᄌᆞᆷ녜가 허운데기[57]들 심엉 싸움 허는 거라. 게난 송첨지 영감이 말을 허길.

"야, 느네 ᄒᆞᆫ 불턱[58]에 놀멍 그추룩 싸움 허민 뒈느냐. 걸 이레 ᄃᆞ라. 여는 걸랑 나가 올아주크메이[59], 이 쏘복[60]에 금이 드나, 은이 드나, 느네들 일곱 ᄌᆞᆷ녜가 똑같이[61] 갈랑들 앗이고, 이 책갑이랑 날 ᄃᆞ라. 나 담배

---

51) 겟마리: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의 지명.
52) 헛무레질: 해녀들이 소라나 전복 따위를 캐는 물질.
53) 무레질: 물질.
54) ᄃᆞ투왓던: 다퉜던.
55) 엉물: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지명.
56) 춤대: 낚싯대.
57) 허운데기: 헝클어진 머리카락.
58) 불턱: 해녀들이 물질을 하다가 불을 피워 몸을 녹이고 옷을 갈아입는 곳을 말함.
59) 올아 주크메이: 열어 주겠으니.
60) 쏘복: 속.
61) 똑같이: 똑같이.

속갑[62]이나 허저.”

“게건 경 헙서.”

허연. 이젠 그걸 송첨지 영감이 올아가난, 무슨 그 쏘복에 금이 들엇인가, 은이 들엇인가. 좀녜들은 ᄒᆞ꼼이라도 하영 앗젠[63] 손을 쏙쏙쏙쏙 찔른 거주게. 게난 선뜻선뜻 헌 거라.

“아이고, 이거 무신건고?, 무신건고?”

허연. 이젠 손은 다 파네뒁 여난, 나오는 건 보난 베염 일곱 개가 느 꼴리는 내가 물고, 내 꼴리는 느가 물고, 줄줄줄이 그냥 막 꼴렝이들 물멍 ᄆᆞ딱 나오는 거 아니. 경 허난

“아이고, 투더럽도 투더럽다[64]. 영 헌걸 놓안 우리가 싸와졋구나.”

허연. 그 베염 우터레[65] 춤을 탁 탁 탁 바까분[66] 거라. 거난 베염들은 숨부기낭[67] 알더레 솔솔솔솔 다 기어들언. 아이, 겐디. 일곱 좀녜들이 집이 오난. 머리에 궂인 허물도 난다. 눈엔 도랑팔 한팔[68]도 나고, 귀엔 귀아덜도 나고 뭐, 코에 콧줄이여, 입에 하메여. 아이, 그냥 막 이디 아파, 저디 아파. 생손도 알리고 생발도 알리곡 막 경 허연. 조벤 약[69]을 암만 써도, 옛날이사 이제ᄀᆞ추룩[70] 병원 잇곡 경 헌 때라. 조벤 약을 암만 써도 좋지를 안허는 거라. 경 하도 일곱 좀녜도 답답을 허난, 가물개 이원신이네 큰 어른이 잇이난 그디 간 문점을 헌거라.

“이만저만 헹 우리가 영 아팞우다[71].”

허난.

“경 말앙 함덕 셋사스미 알[72]로 강 장막 치어 놓고. 이제 웨국서 들어온 메친[73] 조상신디 걸렷우다. 게난 장막 치엉에게[74]. 메도 일곱, 떡도 일곱, 쏠도 일곱, 제 메치[75], 제 신상(神像) 그령 앚게방석[76] 자리 노신 놓

---

62) 속갑: 담배함.
63) 앗젠: 가지려고.
64) 투더럽다: 더럽다의 뜻.
65) 우터레: 위로.
66) 바까분: 뱉은.
67) 숨부기낭: 순비기나무.
68) 도랑팔 한팔: 눈병(眼病) 이름.
69) 조벤약: 치료가 될 만한 모든 약
70) 이제 ᄀᆞ추룩: 지금 처럼.
71) 영 아팞우다: 이렇게 아프고 있습니다.
72) 셋사스미 알: 함덕리 해변 멸치잡이 어장 아래.
73) 메친: 맺힌.
74) 치엉에게: 쳐서.
75) 메치: 맵시.
76) 앚게방석: 앉을 방석

안, 그 베염을 그려 노앙. 경 헹 사나흘을 일곱 석을 풀어보민 알아볼 도리가 잇이쿠다.”

이제 가물개 이원신님 ᄀᆞᆯ은 데로 이제 집이 오란, 셋사스미 알로 강 장막 치어 놓고 ᄀᆞᆯ은 데로 ᄆᆞᆫ딱 출련. 아이, 간. 푸다시[77]허고 허연. 일곱 석을 사 나온 게[78], 좋는 처리 모르게 오골오골오골 ᄆᆞᆫ딱 조아 그것이. 아, 좋앗인디 물에도 들레가민 다른 ᄌᆞᆷ네들은 못 헤도 일곱 ᄌᆞᆷ네들은 망사리 ᄀᆞ득씩[79] 허는 거라. 대전복이여 소전복이여 뭐 그냥 뭉게여 구젱기여 막 허연 막 좋은 게. 큰 집도 사고, 큰 밧도 사고 막 허는 거 아니.

게난 함덕 일만 해녀, 어부들이. 아이고, 저 외국서 들어온 조상 일곱 ᄌᆞᆷ네들은 위허난에 잘 뒈엄덴 허연. 우리도 ᄆᆞᆫ딱 경 허겐 허연. ᄆᆞᆫ딱 셋사스미 알로 간에 그 조상들만 다 위허는 거라. 게고 돌멩일, 그자 물에 들어갈 땐 돌멩이 하나 앗안 강, 그 위에 톡 놓고, 또 물 쏘곱에 강, 물질 헹 나올 때도, 그 칠성 위허젠 돌멩이 하나 건져 나오멍, 그 위에 톡 놓고 허멍. 그디 이제 제단 ᄀᆞ추룩 멘들아 논 거라. 경 헨에. 일곱 ᄌᆞᆷ네만 위허는 게, 일만 해녀 어부가 다 위헤가난.

함덕 동편(東便)금석(金石) 서편(西便)왕석(王石) 급서올라황하늘[80]은 석덜 열흘 벡일을 앚아도 원, 어느 ᄌᆞᆷ녜, 어느 누게 하나 원, 출령 오는 자가 하나도 엇인 거라. 영 먼 정을 굽엉 보난. 그 칠성만 막 위허는 거라. 해녀들이, 어부들이영. 게난 막 부에가[81] 뒈싸진거라. 이 외국서 들어온 이 칠성덜, 이 함덕 ᄆᆞ을 안네 빨리 안 나가가민 선흘곳 들어 강 들굽낭[82] 작대기 헤당 동 서드레 막 케우려 불켄 막 욕을 헌거 아니. 급서황하늘이. 겐 욕허난. 그 칠성한집 어머님이 허는 말이

“아이고, 설운 애기덜아. 우리 이디 잇당 이제 들굽낭 작대기로 다 케우려불켄 헸저. 낮이랑 뒈건 소로질로 곱아근에게, 대로질은 사름덜 하영 뎅겨부난. 소로질로 가고, 밤이랑 뒈건, 우리 ᄆᆞ음 놩 대로질로 가게.”

경 허연 허난. 이제 뚤들이 어서

“경 헙센.”

허영 이젠 나오는게. 함덕 금성못 오란. ᄎᆞᄎᆞ영기(令旗) 혼상 불려두언[83], 지금 조천 만세 동산이 옛날엔 풍선동산이엔 헤낫주. 게난 풍선동산

---

77) 푸다시: 귀신이나 병을 내쫓기 위해 하는 굿.
78) 일곱 석을 사나온 게: 일곱 번을 ‘사나오멍’ 한 것이. ‘사나오멍’은 ‘살려내어’ 정도의 의미임.
79) ᄀᆞ득씩: 가득씩.
80) 급서올라황하늘: 신명(神名).
81) 부에가: 화가.
82) 들굽낭: 두릅나무.

에 오란, ᄎᄎ영기, 그디 강 만세불러부난 만세동산엔 헶주. 옛날엔 풍선동산이엔. 그디 강 ᄎᄎ영기 ᄒᆞ나 불려두언 조천관으로 이름을 지와뒌. 이젠 신촌은 오난. 옛날은 신좌면(新左面) 구좌면(舊左面) 헤나난. 신좌면(新左面)으로 이름 지와두고. 엇다, 이딘 원, 열녀비(烈女碑)나 세울만헌 디엔 허연. 이젠 열녀문(烈女門)으로 이름 지와두고. 이젠 진드른[84] 당허난. 헛다, 짐도 진거라. 욜로, 요만이만 가민 다 가짐직, 욜로, 요만이만 가민 다 가짐직 허멍도 하도 질언. 지난 진드르로 이름 지와 두언. 돌숭이[85] 완 보난 돌숭이만. 그자 돌멩이가 막 한 거라. 게난 아이고, 이디랑 돌숭이로 이름 지웁주겐 헨. 돌숭이로 지완. 삼양 들은 돌엔 완 보난. 어떤 청년이 뜸돌을, 돌 들렁, 들러당 이레간 놓고 들렁 저레간 놓고 경 허난, 들은돌로 이름 지완. 이젠 화북, 이제 저, 주공 아파트 ᄒᆞ꼼 넘어사민 쌀상두거리가 잇인디. 그딘 오난 ᄌᆞ은뚤이

“아이고, 어머님, 어떵 바싹 ᄆᆞᄉᆞ운[86] 기가 낛우다.”

허난

“무사 ᄆᆞᄉᆞ우니?”

허난

“급소황하늘이 꼭 화살을 들렁 우리를 쏘왐직허우다.”

허난

“아이고, 뒤 돌아보지 말앙 ᄒᆞᆫ저 글라.”

그 법으로 옛날에 밤 질 걸을 때엔 뒤 안 돌아본덴 허는 법지법을 마련허여 두언. 이제 그디 넘어산 베릿넨 오랑 보난. 물이 벤찍벤찍 헶어. 게난 보난. 아이고, 하도 둥글멍덜 오난게 눈만 베롱허연[87] ᄆᆞᆫ딱 흙이 덖어진거라. ᄆᆞᆫ지[88]가 소빡허연[89]. 게난 베릿네 오란에. 이젠, 묵은 옷은 가시낭 우터레나, 돌ᄀᆞ망더레나[90] 옷 벗어두언. 이 호겡이[91] 저 호겡이, 호겡이 잇이난. 그디 이저 ᄒᆞ나가, 하나썩 ᄎᆞ지헨. 발착발착 몸모욕[92]을 헌 거 아니. 경 허난 옛날에는 걸엉 제주시에 사람 갈 때는 옷을 포따리에 싼.

---

83) ᄎᆞᄎ영기(令旗) ᄒᆞᆫ 상 불려두언: ‘영기(令旗) 불린다’ 함은 쉬면서 영기를 날렸다는 뜻인데, 이 곳에는 이 신의 당이 있음.
84) 진드르: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에 있는 너른 들판을 이르는 지명.
85) 돌숭이: 자잘한 돌.
86) ᄆᆞᄉᆞ운: 무서운.
87) 베롱허연: 눈만 희미하게 보인다는 뜻.
88) ᄆᆞᆫ지: 먼지.
89) 소빡허연: 가득해서.
90) 돌ᄀᆞ망더레나: 돌구멍에나.
91) 호겡이: 웅덩이.
92) 몸모욕: 목욕.

준등이[93]에 묶엉 화북ᄁᆞ지 간. 베릿네 넘어가민 이젠 신도 새 신 신곡, 옷도 곱닥허게 새옷 입엉 가낫덴. 이제 그디서 칠성한집이 흘벗어나부난[94]. 경 허연 이젠,

그디서 새 옷 골아 입언. 경 허연 ᄀᆞ으니ᄆᆞ르[95] 올라사난. 애가 ᄀᆞ슷ᄀᆞ슷[96] 허는 거라 . 지금은 다 깎아불어신디 옛날엔 막 동산이라난 셍이라. 동산, 게난 그딜 올라사난. 송ᄉᆞ(訟事)헐 생각도 엇고, 재판헐 생각도 엇고, 아무 생각이 엇인 거라. 겐 그디 올라 산. 영 사라봉더레 베려보난, ᄋᆞ총[97]에 골총[98]에 애기덜 죽은 무덤만 막 잇인 거아니. 게난 그딘 ᄀᆞ으니ᄆᆞ르로 이름 지와둰. 글로 들어산. 동문(東門)으로 들젠허난, 동문(東門)을 잡아불고. 서문(西門)으로 들어보젠 허난, 서문(西門)을 잡아불고. 남문(南門)이영 다 잡아부난. 헐 수엇이 이젠 이 사라봉쪽으로 허연 ᄂᆞ려간게. 요 한산물[99]에 들어 간 거라. 경 한산물에 간. 물 흔 적 먹언 이젠 숨 죽연. 경 허연 글로 영 앚안보난. 소피 ᄀᆞ냥[100]이 잇어. 그 소피 ᄀᆞ냥이 산짓물더레 똘라진[101] 고망[102]이라. 게난 소피 ᄀᆞ냥으로 이젠 들어간 산짓물에 간 보난. 막 몸모욕도 허고, ᄉᆞ못[103] 뿔레들[104] 연세답[105]들 허고, 큰 애기덜 막 헶이난에. 아이, 칠성 일곱 개가 들어가난 다 ᄆᆞ숩덴[106].

"아이고, ᄆᆞ숩다. 아이고, ᄆᆞ숩다"

허멍. 다 ᄃᆞᆯ아나분 거라. 아이고, 우리 이디 성도 안뒈켄 이제 글로 나완 칠성골로 허연 관덕정 멧돌우이 간 보난. 벳도 ᄃᆞᆺᄃᆞᆺ허게[107] 나고 허연 사시난[108], 그디 지동토인은 햇빗 나난, 빈직빈직[109] 헤 가난. 이건 무시건고 허연. 영 ᄌᆞ끗디[110] 가 보난. 아이, 베염 일곱 개가 잇인 거 아니. 이거

---

93) 준등이: 등허리.
94) 흘벗어나부난: 허물 벗었기 때문에.
95) ᄀᆞ으니ᄆᆞ르: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지명.
96) ᄀᆞ슷ᄀᆞ슷: 몹시 덥거나 힘든 일을 했을 때, 목이 마르고 숨이 막히어 힘을 차릴 수 없어 토가 올라오려고 목구멍을 오르내리는 꼴.
97) ᄋᆞ총: 아이의 무덤.
98) 골총: 돌볼 사람이 없이 오랜 동안 버려진 무덤.
99) 한산물: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샘 이름.
100) 소피 ᄀᆞ냥: 오줌을 싸는 구멍
101) 똘라진: 뚫어진.
102) ᄀᆞ망: 구멍.
103) ᄉᆞ못: 사뭇.
104) 뿔레들: 빨래들.
105) 연세답: 빨래.
106) ᄆᆞ숩덴: 무섭다고 해서.
107) ᄃᆞᆺᄃᆞᆺ허게: 따스하게.
108) 사시난: 서있으니.
109) 빈직빈직: 어떤 것이 번듯번듯 빛나는 모양.
110) ᄌᆞ끗디: 옆에.

생전 아니 봐난 거옌. 창 들런에게 창으로 앗안 문딱 우터레 케우령 데껴분 거라[111]. 경 케우리난 베부른동산에 간 다 털어지난 베만 볼록볼록볼록. 게난 그디 간 털어져나난 베부른동산이엔 이름 지와둰. 이제랑 정신출령 어디레 가보겐 헤연. 나산 헤짓골[112] 가난. 헤(日)가 폭허게 지어분 거라. 거난 헤짓골이엔 이름 지와둰. 지금 구중이여 뭐여허영 다 옛날 이름 무신 것들이. 다 칠성한집이 뎅기멍 문딱 이름 지와둰. 가락쿳물[113]에 간에 멧돌 위에 간. 아이고, 그디 물도 먹고 그디서라도 어떵 잇이주긴 허연 누윗이난.

옛날 제주시에서 젤 부제칩[114]이 송칩이엔. 게난 송칩잇할망은 막 장남덜 둘앙 살고 허난. 아침 세벡[115]이 일어난 그 장남들 밥헹 멕이고 허젠 허난. 세벡이 물질레 간. 치메 벗언 그 팡 우터레 놔둰. 물 질언. 치멘 확 들르난 무신거 다르륵허게[116] 털어젼 보난 베염이 들어 앚아난 거 아니. 게난, 이제 그냥 집이 온게 피일처일 그냥 몰란[117], 유울언[118]. 게난 허단 허단 버쳔. 첨 ᄌᆞ벤 약 써도 안뒈난. 어디 강 들으난 웨국(外國)서 들어온 칠성에 걸렷젠 허난. 이젠 게난, 흔 십 년만이 춧으레 가난. 이거 펜식(變識)이주게, 눈에 펜식(變識)허연. 간 보난 그대로 잇이난 치메허연 영 들런에

“아이고, 조상님네야, 나에게 테운 조상이건 나 치메통들에 들어 옵서.”

허난. 베염 일곱 개가 솔솔솔솔 문딱 그 치메들에 들어오난. 그걸 톡허게 싸앚아 완. 마당더레 탁 풀어논 거라. 풀어 놘. 마당에 놘에

“조상님에 아무데라도 가고정헌 디레 춧앙 들어갑서.”

허난. 그 마당 니(四)[119] 구석을 다 둘아뎅기는 거라. 다 둘아뎅기단 집 안터레 쏙 들어간게만은 이제 상방[120]구석 니 구석 둘안, 안구들[121] 니 구석 둘안. 이젠 쳇방[122] 간 니 구석을 다 둘안. 정지 간 정지구석 니 구석

111) 케우령 데껴분 거라: 막대 끝으로 치받아 멀리 던지다.
112) 헤짓골: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지명.
113) 가락쿳물: 제주시 이도일동 오현단 밑쪽에 있던 샘 이름.
114) 부제칩: 부잣집.
115) 세벡이: 새벽에.
116) 다르륵허게: 떨어지면서 내는 소리를 흉내낸 꼴.
117) 몰란: 말라서.
118) 유울언: 야위어가서.
119) 니(四): 네.
120) 상방: 대청(大廳)
121) 안구들: 안방.
122) 쳇방: 안방 곁에 딸려 있어 식사를 주로 하는 방.

을 다 돌안. 안고팡드레 솔솔솔솔 문딱 기어든 거라. 경 ᄀᆞ팡에 가난, 칠성 그 어멍이 허는 말이

“설운 나 똘들아, 우리가 영, 흔디들 영 메와지엉[123] 뎅기당 이제 어느 놈 손 땅에, 어느 놈 발 땅에. 이제 흔 날 흔 시에 다 죽어진다. 경 말앙 우리가 다 뿔뿔이 흩어지엉 살당 삼월 삼짓날 뒈엉 궁기궁기 솟아 낭 뎅길 때랑 우리가 만나게.”

헤연, 허난.

“경 헙서.”

허연.

“게믄[124] 큰똘애기 부떠, 는, 어디 갈티?”

허난.

“난 대정원 상(床) 받는 딜로 강 상(床)을 받으쿠다.”

“둘째 똘애긴 어딜로 갈티?”

허난.

“난 정의 현감 상(床) 받는 딜로 강 상(床)을 받으쿠다.”

셋쳇 똘아긴

“이제 목관아지에 판관 상(床) 받는 딜로 강(床) 그 알로 강 상(床) 받으쿠다.”

“넷째 똘애긴 어디로 갈티?”

허난.

“난 새각시 잔치헹은에게 새각시 상 받을 때민 밥 두껭이[125] 올안[126] 그레 숫가락으로 흔 숫가락 거려놩 상(床) 알드레 노민 그걸 받으쿠다.”

“다섯째 똘은 어디레 갈티?

허난.

“난 이제 섬지기[127]도 마련허쿠다, 뒈(升)지기도 마련허쿠다, 말지기도 마련허쿠다, 홉(合)지기도 마련허쿠다. 경 허멍 안동안(內東軒)은, 밧동안(外東軒). 내동안(內東軒) 마련을 허쿠다.”

“으섯째 똘은 어디로 갈티?”

허난.

---

123) 메와지엉: 모여져서.
124) 게믄: 그렇다면.
125) 두껭이: 뚜껑.
126) 올안: 열어서.
127) 섬지기: 곡식을 섬(石)으로 지키는 신.

“날랑 과원(果園). 과원(果園)할망으로 들어 강. 아이고, 어머님아, 어머님, 우리덜 ᄃᆞᆯ앙 영 뎅기젠 허난 얼마나 속앗수까. 구시 월 뒈언양. 노릿노릿허게 익으민양 나, ᄀᆞ는 대[128] 서대 구덕[129]에 지엉양 어머님부떠 바쪄두엉. 이 나라 임금님신디 진상을 바찌쿠다.”

“아이고, 나 ᄠᅳᆯ애기 착실허다.”

허난.

“게난, 어멍은 어디 가쿠과?”

허난.

“날랑 안으로 가민 안고팡(內庫房)에 안칠성[130]으로, 베낏딜[131]로 가민 뒷할망[132]으로. 경 허연 베낏딘 가민 배낭(梨木) 아레나, 유지낭[133] 알로나, 이제 대왓[134] 알로나 강. 옛날이, 우리 아버지네 막 잘살 때 청지에 집[135] 허연 안채에 짝 놓고, 수채(瓦)에 짝 놘 살아나난. 난 아래 남채에 짝 놓고, 우이 수채(瓦)에 짝 놓고. 나, 묵은[136] 각단[137] 새 각단 밧디서 울없이난에, 중이대ᄉᆞ(大師)가 새 비어네 끌레기[138]를 멘들엉 그디 담앙 왓저. 게난, 주젱이[139] 멘들앙 그 우이 이제 주젱이 그레 씨왕. 경 헤근에게, 날라근에게 뒷할망으로 앚고, 안칠성으로 ᄎᆞ지허키여.”

허난

“아이고, 어머님아. 경 허민 우리 어떵헌 때민 만납니까?”

허난

“우리가 일 년에 철갈이[140]를 두 번 받앙. 봄 나민 봄 철갈이, ᄀᆞ을[141] 들민 ᄀᆞ을 철갈이. 경 허영 그때랑 만나뒈. 우리가이 나상 뎅겺이민. 아이고, 무더운 ᄌᆞ순덜 송악낭[142] 막뎅이[143] 들렁 어디레 케우려 불고, 호롱도

---

128) ᄀᆞ는 대: 가는 대나무.
129) 서대 구덕: 대바구니.
130) 안칠성: 고방(庫房)의 쌀독을 지키는 뱀신(富神)
131) 베낏딜로: 바깥으로.
132) 뒷할망: 집 뒤에 모셔지고 집안의 富를 수호하는 신.
133) 유지낭: 유자나무.
134) 대왓: 대나무밭.
135) 청지에 집: 청기와 집.
136) 묵은: 헌. 오래된.
137) 각단: 길이가 짧은 띠(茅).
138) 끌레기: 묶어서 띠를 만듦.
139) 주젱이: 띠나 짚으로 둥글게 엮어 낟가리 꼭지 따위에 덮어 누수(漏水)를 막는 물건.
140) 철갈이: ‘밧칠성’을 모시고 있는 집에서 정초 또는 계절이 바뀔 때 집안에서 진경(進慶)을 비는 무제(巫祭). ‘벨롱갱이’라고도 함.
141) ᄀᆞ을: 가을.
142) 송악낭: 두릅나뭇과의 상록 활엽 덩굴성 식물
143) 막뎅이: 막대기.

께[144] 들렁은에게 우릴 메로 테살령[145] 죽여불고, 경 허민 날 촞앙오라. 귀신 죽는 법 엇다. 우리 아홉 번 죽어도 열 번 도환싱(還生)[146]을 허고, 열두 풍문조훼(風門造化)를 불럿주게. 게난 베염은 옛날도 뎅기멍 집가지[147]도 들아보고, 네도리[148]도 들고, 울타리도 들고, 장항뒤에도 들고, 겡들아뎅기당 어디 둑통[149]에 강 둑세기[150]라도 ᄒᆞ나 놩 놔두민 둑세기도 흠찍허게 들러먹고. 경 허멍 게믄

"어머님아, 우리가 철갈이 받고 허민. 삼월 삼짓날 뒈면 땅 속에서 궁기 궁기 다 촞아 나오랑, 마불림[151], 건불림[152] 다 뎅기고, 이제 뎅길 때에 제수가 궂이민 이제 산 걸로도 보고, 죽은 걸로도 보고 경 허고. 구월 상강(霜降)이 지어가민 우리가 궁기궁기 촞앙 들어가겐."

영 허던, 이제 등세 칠성 한집님이웨다.

---

144) 호롱도께: 짚을 두드리는 타작용 도구
145) 테살령: 혼을 살려
146) 도환싱(幻生): 다시 살아남.
147) 집가지: 지붕의 가장자리. 처마.
148) 네 도리: 문곳도리. 문을 다는 곳의 바로 위에 얹어진 도리.
149) 둑 통: 닭 통.
150) 둑세기: 계란.
151) 마불림: 장마 기운을 날림.
152) 건불림: 더위를 피함.